

#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2천만원 수익나눔 행사

## 오픈 10개월째 모범적인 나눔과 순환 기틀 마련 기관단체 및 시민 적극 동참 ... 씨앗기금 6천여만원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로부터 헌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해 잔 값에 되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단체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데 있다.

아름다운 가게 75호점으로 출발한 포천점은 신용동 필마트(구 예원프라자) 1층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2007년2월23일 오픈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도농복합시인 포천지역에서 아름다운가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의구심과는 달리 포천리더스클럽을 중심으로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태동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된 포천리더스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씨앗기금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인들과 단체, 개인 등 100여명이 동참해 6천300여만원과 아름다운가게 점포제공, 창고제공 등 씨앗자금 혹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9월말 현재 5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중 2천만원이 본부로부터 포천점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포천점은 지난 27일 2천만원을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익나눔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A그룹과 B그룹, C그룹으로 분류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A그룹 4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 8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B그룹 일반인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800만원과 학비가 필요한 학생 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 300만원, C그룹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1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점은 포천동 중심부에 위치한 12평의 작은 가게이지만 600여만원의 월 매출을 올린다.

이같은 매출은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진 이형숙 매니저와 21명의 활동천사(자원봉사자)들이 애정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항상 청결하고 정돈이 잘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다.

포천점은 오픈 초기 포천로타리

클럽과 라이온스클럽,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테리어와 차량을 지원하고 필마트 김창근 대표는 점포 12평을 무상으로 기증해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의 기틀이 마련됐다.

포천점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기관들의 참여가 큰 영향을 주었다. 포천시청 공무원의 함께하는 나눔의 행사, 포천경찰서의 참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행사를 통해 포천점은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게 됐다.

또 일동주민자치센터가 마련한 일동우뚜기 축제때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을 축제 현장에서 열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축제현장이나 기획이벤트를 통해 순환과 나눔이라는 아름다운가게는 점차 포천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됐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포천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60%정도는 아름다운가게 본부나 수도권지점에서 보내온 것들이다. 포천시민들의 물품기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역의 자체적인 기증과 순환을 통한 나눔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 또 포천점의 판매건수는 매일 2천여건이지만 대부분 단골고객이다. 포천지역 도심권 시민들은 가게를 많이 찾고 있지만 농촌지역까지는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다.

포천점에서 잘 판매되는 품목은 의류와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어린이용 도서와 학생도서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 어린이가 성장하거나 학생들이 읽었던 도서를 기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서순환이 아름다운가게 완성단계다.

양호식 포천점 운영위원장은 "포천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등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포천점이 잘 운영되는 것은 포천시민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 들이고 기관단체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주송 포천점 대표는 "아름다운 가게는 나눔과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헌 물건이라고 해서 꺼리지 말고 기증해 주면 포천점에서 판매한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 물품들은 본부를 통해 각 지점으로 기증되고, 그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들은 제3계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기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천점에는 활동천사 20여명이 순서에 따라 매주 4시간 혹은 5시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개소식



포천경찰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양호식 운영위원장과 활동천사들

간씩 자원봉사를 하고있다. 자원봉사자인 활동천사들이 있기에 아름다운가게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영업한다. 매장주

체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필마트 1층(구 예원프라자). 교통편은 포천시청앞 하차 138번, 72번, 72-2번. 포천점에서는 활동천사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한다. 매장/활동천사 문의는 031-535-7799 trust-its@bstore.org(매니저 이형숙) 하면 된다.

이형숙 기자 form65@paran.com

### 취재파일

### 수도권관련 법안 개정 또 연기

## 국가균형 발전 大義名분에 역행

### 포천지역 대형 프로젝트사업 지지부진 될 듯



하승완 분기 취재국장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로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2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관련 대부분의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넘겼다.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대체로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4년제 대학 신설, 그린벨트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이전이나 신설, 대단지 유치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포천시가 민자 3388억원원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산정호수종합 개발계획이나 4년제 대학유치 등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포천지역만 하더라도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은 1천30만평에 이른다. 게다가 포천시 전체 면적의 3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오면서 살아왔다.

최근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포천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영광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만 하더라도 포탄이 차량지붕에 떨어진 것을 비롯해 포탄의 주낙나하, 헬기조종실 공중낙하, 155mm 포탄발사 낙하 등 9건과 헬기조종실 비행으로 인한 인상발 피해, 건물과 축사 피해 등 9건, 사격 및 훈련으로 인한 산불 8건 발생, 기름유출 사고 2건, 산림훼손에 의한 토사유출 농경지 피해 2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영광사격장 야간사격 중지요구를 비롯한 다라대 사격장 출입영농 요구, 소음을 탄약부대 이전요구, 승진훈련장 반대집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동면 연곡리 주민들이 원평사격장에서 실시하는 포사격으로 인해 생활권이 크게 침해 받는다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건축행위나 토지정형변경 등에 대한 각종 제약을 받아왔지만 정부 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없는 가운데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보고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군부대 밀집지역인 이동면과 창수면 등 접경지역은 사격장과 훈련장이 입지하고 있어 반세기 동안 국방부가 주민토지를 징발해 활용하고 개발제한과 훈련 및 사격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이층삼중의 고통을 받고있다.

군부대 장비가 최신화되면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등 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명피해나 주택파손 등 사격이나 훈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일부 보상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야간 사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진동으로 건물손상 등 입증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신무기 등에 의한 증진속 오염, 비산먼지 등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이러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져야 하지만 포천시민들은 끈심의 의무를 추가해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시민들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고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어떠한 보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점검지역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상 상위법으로 작용되면서 점검지역지원법이나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비수도권지역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국가 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세기 동안 철저히 외면당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남부와 군부대가 주둔하고 일상적으로 훈련하는 경기북부지역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면 경기북부지역 또한 수도권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끈심의 명을 지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빼앗아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祝 포천신문 창간 제18주년 기념식

지난 한해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포천의 정론지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하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7년 12월 15일(토) 오후1시~3시
- 장 소 : 송우웨딩홀
- 내 용 : 기념식 · 축하파티
- 특별초청 : 탤런트 김성환

- 행사문의 : 031-542-1506~7
- 창간일 : 1990년1월15일(창간기념식은 1개월 앞당겨 실시하기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200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 포천신문 발행인 최호열
-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이보용
-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윤이용
-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장 양근원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박혜자
-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